

# “도서관 자리 릴레이로 쓰실 분?”

“도서관 자리 릴레이로 함께 쓰실 분?”

지난 16일 밤 10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도서관 ‘백도’는 중간고사(19~23일)를 앞두고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일부 출입구 쪽 좌석을 제외하고 전체 12개 열람실(2082좌석)은 대학생들로 인해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남대도서관자치위원회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백도를 24시간 개방함에 따라 학생 대부분은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다. 빈 자리에도 대부분 가방과 전공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본격적인 중간고사가 시작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도서관 자리를 차지하려

## 대학교 중간고사 앞두고 자리구하기 전쟁

### 효율적 이용방법 대학 홈페이지에 글 올리기도

### 일부대학 정원 20% 열람실 규정 안지켜

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닌다고 해서 ‘도서관 메뚜기’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백도’의 경우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반을 입력하고 ‘좌석 발권’을 해야만 지정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해도 뜨기 전에 눈을 비비고 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거나 대리 발권을

하는 모습은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효율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에는 ‘도서관 자리 릴레이’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수현 학생은 “아침마다 발권하기 너무 귀찮고 힘든데, 한 사람이 일찍 발권을 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 자리를 여러 명이 ‘시간제’로 이용하려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고 글을 올렸

다.

‘자리 릴레이’를 할 경우 창가, 구석, 노트북 열람실, 칸막이 열람실 등 소위 ‘명당’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소개돼 있다.

김미진 학생도 “원하는 시간대에 백도 자리를 쓰고, 끝나면 바통 터치하는 자리 릴레이를 하려고 한다”며 “백도를 사용하고 싶은 시간대만 인적 사항을 연락해 달라”고 글을 남겼다.

상황이 이렇지만 조선대 14%, 남부대 19%, 목포대 14%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일부는 학생 정원의 20%에 달하는 열람좌석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남대도 20%에 그쳐 겨우 규정에 턱걸이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경찰 창설 70주년 맞아 제복 10년만에 바뀐다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10년만에 밝은 색상으로 변경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복과 기동복은 기존 남색을 유지하되 기동복은 명도가 다소 밝아졌다. 일반 근무복은 상의가 청록색, 교통신용복은 아이보리 화이트이며, 바지는 모두 남색이다. 점퍼는 짙은 회색이다.

근무복에서 넥타이 착용이 폐지되고 필요 시 매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교통경찰은 현행과 같이 넥타이 착용이 유지됐다. 교통 근무복은 거리의 법 집행자로서 시민 눈에 쉽게 될 수 있게 바지 옆에 줄무늬가 들어갔다.

경찰청은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경우 활동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카고팬츠를 입을 수 있게 했다.

내년 6월 하절기 근무복을 시작으로 2017년 점퍼류, 2018~2019년에는 정복과 기동복 등 개선된 경찰제복이 순차로 일선에 보급된다. 현행 경찰 제복은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2005년에 개선안이 마련돼 2006년에 보급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쌀값 하락에 성년 농민

값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0일 오전 영광군 대마면 북평마을에서 수확을 앞둔 벼의 나락을 트랙터로 갈아 엮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쌀수급 중단과 쌀

스 교통사고는 토요일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간 총 40건의 사고 중 토요일 15건이 발생했다. 월요일 2건, 화요일 4건, 수요일 3건, 목요일 7건, 금요일 5건, 일요일 4건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6시에 8건이 발생해 조심 운전이 요구됐다.

## 관광버스 사고 10월·토·오후 6시 ‘최다’

## 전남지방경찰청

관광버스 사고는 가을 행락철인 10월, 토요일, 오후 6시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관광(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총 187건으로, 2012년 68건, 2013년 49건, 지난해 70

건이었다. 월별로는 ‘가정의 달’이자 봄나들이철인 5월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색단풍이 물든 10월 23건이었다. 월평균 관광버스 사고가 5.2건인 것과 비교하면 5월과 10월은 4배 이상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가을 행락철인 10월(11건)과 11월(8건)에 19건의 관광버스 사고가 발생, 27.1%를 차지했다. 가을 행락철(10~11월) 요일별 관광버

스 교통사고는 토요일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간 총 40건의 사고 중 토요일 15건이 발생했다. 월요일 2건, 화요일 4건, 수요일 3건, 목요일 7건, 금요일 5건, 일요일 4건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6시에 8건이 발생해 조심 운전이 요구됐다. 전남호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행락철 단풍관광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인해 이용이 증가하는 관광버스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짙은 안개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3 해질 17:51  
달출몰 13:32 달지름 --:--

푸른 하늘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14/26	보성	맑음	11/24
목포	맑음	15/24	순천	맑음	14/26
여수	맑음	18/23	영광	맑음	12/25
나주	맑음	11/26	진도	맑음	13/25
완도	맑음	15/25	전주	맑음	11/25
구례	맑음	10/26	군산	맑음	12/23
강진	맑음	12/26	남원	맑음	11/25
해남	맑음	12/25	축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11/25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5~2.5

		밀물	썰물
목포		07:16	00:22
		20:07	12:29
여수		02:01	08:00
		15:09	21:56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15/26	12/25	13/23	12/23	12/21	12/20	12/20

## 낙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벌써 잇었나

### 목포·영암 갈치낙시어선

### 구명조끼 미착용 등 22척 적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낙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에도 목포 평화광장, 영암호 앞바다에서 영암 중인 낙시 어선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목포와 영암 앞바다에 갈치 낙시 어선의 영업을 허가된 이후 2개월간 무려 22척의 낙시 어선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 일대에는 낙시어선 70여척이 영업 중이다.

지난 9월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점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낙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

한 행위중 승객 신분증 미확인인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선장의 승선무 위반 3건으로 파악됐다. 선상에서 승객의 음주도 3건 적발됐다.

목포항은 ‘항만법’과 ‘개항질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예초 낙시영업을 할 수 없지만 불법 낙시영업이 묵인돼 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항내 갈치낙시가 금지됐고,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과 가을철 낙시꾼들로부터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목포시, 영암군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준을 갖춘 어선에 한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항내에서의 영업을 허용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구속집행정지 연기 불허 이홍하씨 재수감... 내일 선고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법원에 세번째 구속집행기간 연기 신청을 했지만 불허됐다.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19일 이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20일 오후 4시를 기해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2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이씨는 지난 8월21일 광주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와 턱뼈 등을 크게 다쳐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성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생면 조생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